

# 그로테스크 특성이 반영된 예술 분장의 연구 - 안면 분장을 중심으로 -

김 승 현

MBC 아카데미 뷰티스쿨 대전 캠퍼스 원장

## A Study on the Art Make-up Reflected on Grotesqueness - Focused on Face -

Kim, Soong-Hyun

MBC Academy Beautyschool, Daejon Campus  
(2005. 5. 25 접수)

### Abstract

Art-Make-up has resulted in occupying one of the central areas of this culture. Art Make-up is currently undergoing various changes. The viewpoint of modern make-up is the infiniteness of emotion such as the subjectively individualized expressions and aesthetic values breaking with conventional thought. The most significant change is the idea of the 'grotesqu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re-clarify the development of the diversity, professionalism and artistic feature through the study of Art make-up based on the 'grotesque' style. This also strives to focus attention at observing the deep and mysterious workings of the human inner world. In order to explain the features of 'grotesque' Art make-up, six images below are presented. Firstly, Inharmonious images. Secondly, disgusting inhuman images. Thirdly, mechanical images. Fourthly, distorted and exaggerated images. Fifthly, diabolic and horrific images. And, lastly, playful images. These six images thoroughly demonstrate the 'grotesque' features. The fact that we can see the 'grotesque' features in Art make-up explains the enormous growth of Art make-up and the unlimited range of expression in this field. It also implies that the choice of material and theme is not restricted to universal artistic criteria. In closing, it is necessary that Art make-up is thought of not as actual art but more as a tool for its subjects. As a result, this research will provide valuable information for studies in the future.

**Key words** : Art make-up(예술분장), Grotesque(괴기한 것, 극도로 부자연한 것)

## I. 서 론

### 1. 연구의 목적

현대 분장의 양상은 표현의 무제한성을 보여주고 있다. 기존의 전통적인 미의 관념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주관적인 개성표현과 미적가치가 나타나고 있는

데 그것은 예술 분장의 영역에서도 다양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새롭고 다양한 변화들은 무시무시한 것, 엽기적인 것, 추한 것, 희극적인 것 등으로 대표되는 그로테스크의 개념과 연관지을 수 있다. 이 연구는 현대에 나타나는 분장의 다양성, 전문성, 예술성의 발전을 그로테스크적 표현양식에 의거한 예술 분장의 연구를 통해 재조명 할 것이며 이러한 연구로 인해 전통적인 디자인 개념에서 벗어나 시대적인 흐름과 다양한 문화의 발전으로 영향을 받은 현대 인간

\*Corresponding author: Kim, Soong-Hyun  
E-mail: nco90250@hanmail.net

의 내면세계를 폭넓게 인식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찾아보고자 한다.

## 2. 연구의 방법과 내용

이 연구를 위해 선행된 방법으로 제2장에서는 문헌 조사를 통해 ‘그로테스크’에 대한 개념정의와 발생을 살펴보고 그로테스크 예술의 역사를 고찰해 봄으로써 그로테스크가 가지는 예술적 의미를 알아보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예술 분장의 개념과 유형을 분류해 볼 것이며 예술 분장의 작품사진을 분석하여 예술 분장 표현영역의 다양성을 확인해봄으로써 현재 예술 분장의 발전정도를 확인해 볼 것이다. 제4장에서는 본 연구의 핵심내용인 그로테스크적 특성이 반영된 예술 분장의 표현방법에 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 필립 톰슨(Philip Thomson)이 정의한 그로테스크의 특징을 기반으로 그로테스크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예술 분장 작품들을 분류하면서 다음의 여섯 가지 유형들로 구분해 보았다. 첫째 부조화적 이미지, 둘째 비인간적 이미지, 셋째 기계적 이미지, 넷째 왜곡과 과장의 이미지, 다섯째 악마적 이미지, 여섯째 유희적 이미지가 그것이다. 이 연구를 기반으로 분장 기술력의 빠른 성장과 더불어 예술 분장의 주제나 표현방법의 다양성을 분석해봄으로써 새로운 각도의 분장 발전 가능성을 엿보고자 한다.

## II. 그로테스크의 이론적 고찰

### 1. 그로테스크의 개념과 특성

‘그로테스크하다(grotesque)’라는 말은 원래 조형예술의 영역에서 유래한 것으로 그로테스크(grotesk)의 어원은 동굴 혹은 발굴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태리어 그로뜨(grotte)이며 여기에서 형용사형인 그로테스코(grottesco)와 명사형인 그로테스카(la-grottesca)가 생겨

났다. 불어로는 크로테스크(crotesque)라는 말이 일찍이 1532년부터 사용되었고, 영어에서는 이 말이 쓰이다가 1640년 무렵 그로테스크(grotesque)로 대체되었다<sup>1)</sup>.

최근에 발표된 *Grotesque*의 저자인 필립 톰슨(Philip Thomson)은 그로테스크의 현대적 정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갈등. 충돌. 이질적인 것의 결합, 혹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들의 융합으로 인한 부조화와 둘째 아이러니(irony)와 패러독스(paradox)와 같은 갈등이나 대립을 수반한 희극적인 것 그리고 동시에 끔찍한 것 셋째, 정상적인 것을 벗어난 과장과 극단, 그리고 공상적이지만 여전히 현실적인 우리의 당면현실이라는 사실 넷째, 재미와 혐오, 웃음과 공포, 유쾌함과 불쾌함을 동시에 체험하는 비정상성을 그로테스크로 규정하고 있다<sup>2)</sup>.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나누어본 그로테스크의 특성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 2. 그로테스크 예술의 역사

그로테스크 예술의 역사를 미술사조에 근거해 분석해 보았다.

중세시대에 그로테스크와 맥을 같이 하는 양식의 조짐은 고대 초기의 기하학적 양식으로부터 이며 공상동물, 동물들의 모습. 짐승과 인간의 신체가 뒤섞여 일대 혼잡을 이룬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그로테스크 초기적 모습을 짐작하게 한다. 일찍이 중세시대 화가 쥐세페 아르킴볼도(Giuseppe Arcimboldo)는 「물, 16세기」에서 그로테스크의 혼잡한 형상을 표현하였다.

르네상스는 재생 혹은 부흥을 뜻하는 말로 14세기 이탈리아에서 시작되어 16세기 유럽을 풍미하여 정점에 이르렀던 인간중심의 미술경향을 말하는데 르네상스 말기에 나타난 매너리즘(Mannerism)에서 그로테스크의 양식을 발견할 수 있다. 대표적인 마니에리즘 작가 중 엘 그렛코의 「오르가스 백작의 매장, 1588」은 인물묘사에 나타나는 과장된 인체비례로 인해 그로테스크 개

<표 1> 그로테스크의 특성 분류

분류	내용
부조화성	그로테스크의 가장 유별난 특징, 갈등, 충돌, 이질적인 것의 결합, 본질적으로 다른 것들의 융합.
비정상성	정상상태를 벗어난 부자연스러움의 특징, 직접적이고 과격한 방식으로 그로테스크의 비정상성을 표현, 역겹거나 혐오스러운 공포성향 내포.
극단과 과장	공상적인 것과 친화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그 자체가 아닌 현실과의 뒤업힘으로 극단과 과장 표현.
웃음과 공포	초자연적인 것, 모순적인 것, 기존의 질서가 용납되지 않는 지옥의 세계 등 소원된 세계를 표현의 대상으로 함, 본래의 모습을 상상하며 변형된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 우스꽝스러움, 놀라움, 공포감, 당혹감을 느끼게 함.

념을 르네상스식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890년 세기말의 불투명성, 불안, 의문의 유럽 문화 속에서 그로테스크는 상징주의 미술가들이 즐겨 한 주제인 성에 대한 집착을 통해 보여 진다. 대표적인 작가와 작품으로는 구스타프 모로(Gustave Moreau)의 「외디프스와 스펅크스, 1864」와 오딜롱 르동(Odilon Redon)의 「The crying spider, 1881」을 들 수 있으며 그들은 미의 이상화를 회피하고 형태를 왜곡시켜 그로테스크의 형태를 재현하고 있다.

표현주의에서 그로테스크한 표현은 주로 ‘변형(deformation)’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 ‘변형’은 대상에 대한 작가의 주관적 해석과 이를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sup>3)</sup>. 에공 쉴레의 「Self portrait standing, 1910」을 예로 들 수 있다.

초현실주의(Surrealism)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1919년부터 제2차 대전 발생 직후까지의 약 20년간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전위적인 문학, 예술운동이다<sup>4)</sup>. 그로테스크의 이질적인 것의 결합과 정상성에서 벗어난 과장과 극단 등은 초현실주의 사과의 근간이 되는 것이기도 하다. 초현실주의 작가 가운데 르네 마그리뜨(Rene Magritte)는 역설을 통해 작품을 그로테스크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무생물의 생물화를 표현하는 「붉은 모델, 1935」이나 양성의 이미지 결합을 표현하는 「능욕, 1934」은 모순적인 양의성의 그로테스크와 다르지 않다.

### III. 예술 분장의 이론적 고찰

#### 1. 예술 분장의 개념

예술 분장은 어떤 테마를 가지고 다양한 문양이나 추상적 화법, 사실적 묘사, 빛의 음영처리, 사진기법을 사용한 연출 등으로 표현하여 작품으로 승화시키며 이를 대중에게 전달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예술 분장은 인간의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독특한 한 장르로서 이는 분장이 다양화되고 진 문화되면서 발생하게 된 것이다<sup>5)</sup>.

#### 2. 예술 분장의 분류

##### 1) 환타지 분장(Fantastic Make-up)

환타지 분장은 다양한 소재(필, 반짝이, 아쿠아 크림 등)를 이용하여 강하면서도 화려하고 과장되게 이

미지를 표현하여 작품의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기법이다. 실제와 상상의 세계를 교합하는 추상적 존재, 동물들의 형상화, 현실과 초 현실을 연결하는 도구로써 발전되어 왔다. 특히 연극, 무용, 음악 등의 무대예술에서 주로 표현되며 축제나 파티, 무도회 등 일상 생활 속에서도 표현되고 있다<sup>6)</sup>.

##### 2) 바디 페인팅(Body Painting)

바디페인팅은 바디아트의 영역에 속하며 그것은 인간의 신체에 행해지는 장식품과 장식물, 즉 신체를 새롭게 만드는 모든 것(헤어 드레싱, 패션)들을 포함한 말이며 그것은 영구적인 문신, 브랜딩, 상처나 또는 일시적으로 행해지는 염색이나 페인팅을 포함하는 것이다.

### IV. 그로테스크 특성이 반영된 예술 분장의 사례와 작품제작

분장의 발전으로 야기된 다양성으로 대변할 수 있는 예술 분장에서의 그로테스크적 표현방법을 연구하고자 그로테스크의 특성을 기준으로 예술 분장의 표현 형태를 다음의 여섯 가지로 분류해보았다. 부조화적 이미지, 비인간적 이미지, 기계적 이미지, 왜곡과 과장의 이미지, 악마적 이미지, 유희적 이미지로 나누어 각각의 이미지에 반영된 그로테스크의 특성 및 표현기법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본 분석을 바탕으로 각각의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는 실제 작품 제작을 통해서 이론과 실체를 연결한 결론을 유추해보고자 한다.

위의 연관관계 및 분류를 <표 2>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그로테스크 특성이 반영된 예술 분장의 사례

##### 1) 부조화적 이미지

그로테스크의 현대적 의미를 정의할 때 부조화는 그로테스크의 가장 유별난 특징으로 갈등, 충돌, 이질적인 것의 결합 혹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들의 융합 등으로 언급되고 있다. 이렇듯 갈등, 충돌 그리고 이질적인 것의 혼합은 그로테스크의 창조의 근간이며, 이것은 여타의 고상한 것들과 구별 짓는 근원이기도 한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예술 분장에서의 부조화

&lt;표 2&gt; 그로테스크 특성과 예술 분장과의 연관관계

부조화성	부조화적 이미지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소재끼리의 이질감 내지는 이중적인 분배의 표현으로 해석.
비정상성	비인간적 이미지	일반적인 상식의 개념을 벗어나 혐오스러움을 유발하는 주제의 표현으로 해석.
	기계적 이미지	비정상적인 공상의 세계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
극단과 과장	왜곡과 과장의 이미지	사실적이지 않은 표현으로 해석.
웃음과 공포	악마적 이미지	악마를 모티브로 한 표현으로 해석.
	유희적 이미지	상식적인 미의 개념에서 벗어난 우스꽝스러운 표현으로 해석.

또한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소재끼리의 이질감 내지는 이중적인 분배로 정의할 수 있다. 하나의 공통된 주제로 작품을 표현하고 전달하려는 이미지를 충실히 표현하는 것이 아닌 상반되고 이질적인 성향이 강한 소재들 혹은 전혀 무관해 보이는 소재를 선택해 양분화 시켜 표현함으로써 작품을 감상하는 이를 갈등과 혼돈 속에 빠뜨리는 것이다. MAKARA에 나오는 작품 <그림 1><sup>7)</sup>은 보에라(Boela)의 「Face's Fantasy」로 예술 분장에서 볼 수 있는 그로테스크적 부조화에서 느낄 수 있는 갈등을 가장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작품이다. <그림 2><sup>8)</sup>도 MAKARA에 나오는 에디뜨(Edith)의 「Cocteau's dream」이다. 훨씬 단순화 되어있는 작품이기는 하나 인위적으로 상반되는 느낌을 얼굴을 양분화 시켜 표현함으로써 의도적인 충동효과를 만들고 있다.

## 2) 비인간적 이미지

예술 분장에서 느낄 수 있는 혐오스러움은 상식적인 미의 개념을 벗어난 데에서 비롯되는 혐오스러움보다 인간이 받는 고통 내지는 가혹적인 충동으로 야기되는 인간본능의 폭력적 성향을 내포하고 있다. 이

러한 주제와 소재가 담고 있는 잔인함은 작품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심리적인 갈등을 유발시키고 해결되지 않는 모순으로 인한 긴장을 가져옴으로 인해 혐오스러운 감정은 극대화되게 된다. <그림 3><sup>9)</sup>은 MAKARA에 나오는 보에라(Boela)의 「Point á la ligne」라는 작품으로 인체를 소재로 하여 정밀한 선의 표현으로 분장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한껏 발휘한 작품이다. <그림 4><sup>10)</sup> 또한 같은 작가의 작품 「Ogle」이다. 살갓이 벗겨져 있으며 벗겨진 피부안쪽에 파충류의 피부 같은 느낌의 것을 드러나게 표현해 더욱 섬뜩한 느낌을 전달한다.

## 3) 기계적 이미지

20세기의 하이테크 문명은 인간과 기계의 교묘한 결합으로 비정상적인 공상의 세계를 그로테스크하게 표현하고 있으며 이것은 역사상 그로테스크 초기 작품에서 나타난 바 있는 인간과 동물의 이미지가 혼재되어있던 반인반수의 공상성에서 엿볼 수 있는 혐오스러움으로 표출되는 그로테스크와도 일맥상통한다 할 수 있다. <그림 5><sup>11)</sup>는 MAKARA에 수록된 작품인 사비어(Xavier)의 「H<sub>2</sub>SO<sub>4</sub>」로 기계의 이미지를



<그림 1> Boela  
「Face's Fantasy」



<그림 2> Edith  
「Cocteau's dream」



<그림 3> Boela  
「Point á la ligne」



<그림 4>  
Patrick Leis 「Ogle」

모델의 얼굴에 섬세하게 표현하였는데 조형물을 이용하여 오브제적인 효과도 배가시켰다. <그림 6><sup>12)</sup>은 패트릭 레이즈(Patrick Leis)의 *BODYPAINT*에 나오는 작품 「Terminator」로 마치 피부의 일부분이 벗겨져 있고 벗겨진 피부 내부에 정밀한 기계가 묻혀있는 사이보그의 이미지를 섬뜩하게 묘사하고 있다.

4) 왜곡과 과장의 이미지

형태의 왜곡과 과장은 현대의 많은 작가들을 사로잡은 문제였다. 어떤 작가들은 자기예술의 교조적이며 관계적인 면을 보상하는 미적, 윤리적, 유희를 그로테스크한 표현에서 찾는다. 일종의 카타르시스적 공포의 환각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작가의 강박관념 적 세계의 일부이며 비판정신 보다는 잠재의식의 산물에 가깝다<sup>13)</sup>. <그림 7><sup>14)</sup>은 *Maquillage visage*에 수록되어있는 소피 르퐁뜨(Sophie Lecomte)의 작품 「Mise en valeur des yeux」로 이마에 눈을 하나 더 그려 넣음으로 인해서 일반적인 인식에서 벗어난 기형적인 모습을 표현해 인체의 형태를 왜곡되게 표현하였다. <그림 8><sup>15)</sup>은 그녀의 또 다른 작품 「Création de volumes」이다. 얼굴측면에 또 다른 얼굴 형태를 그려 넣음으로 인해서 인체를 기형적으로 표현해 인간이 느끼는 기형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5) 악마적 이미지

크리스토프 마틴 뷔란트(Christoph Martin Wieland)는 그로테스크와 괴물을 함께 언급하여 그로테스크의 악마적 특성을 짐작하게 하는데, 문화예술 영역에서

보여 지는 그로테스크 현상은 혐오스러운 악마를 통해 시대적, 사회적 부조리와 자본주의의 모순을 부각시키고 인간 삶의 본질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자 한다<sup>16)</sup>. <그림 9><sup>17)</sup>는 *Peinture-maquillage*에 나오는 작품 중 하나로 악마의 이미지를 붉은 색과 검은 색으로 원칙적으로 표현한 예술 분장이다. <그림 10><sup>18)</sup>은 패트릭 레이즈(Patrick Leis)의 *BODYPAINT*에 나오는 작품 「Monster」로 괴기스러운 악마의 이미지를 인체의 근육모양을 이용하여 정밀하게 표현한 작품이다.

6) 유희적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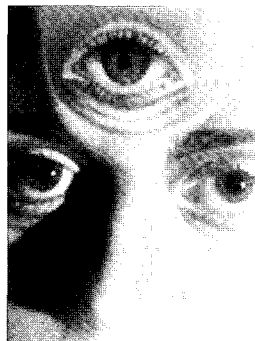
본질적으로 그로테스크의 희극적인 역할을 논한다면 그로테스크가 유발하는 웃음은 ‘자유롭지’않다는 점, 기쁨을 맛보는 순간 끔찍하고 역겨운 어떤 것이 슬며시 파고 들어온다는 점 즉 신나는 웃음이 쓴 웃음으로 뒤바뀐다는 사실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그로테스크가 존재의 끔찍스럽고 역겨운 면을 표면으로 끌어 내어 거기에 희극적 관점을 도입함으로써 해로움을 덜게 하는데 이바지한다는 뜻 일수도 있다<sup>19)</sup>. <그림 11><sup>20)</sup>은 *Peinture-maquillage*에 나오는 작품으로 어린아이의 얼굴에 인간의 두개골 형상을 그려 넣음으로써 인간이 두려워하는 죽음에 대한 공포심과 혐오감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고 있다. 똑같은 주제를 골격이 강한 성인 모델에게 표현했다라면 희극적으로 보이기보다는 혐오스러운 느낌이 강했을 것이다. 작품을 제작하는데 있어 모델이 중요성을 짐작하게 한다. <그림 12><sup>21)</sup> 또한 언뜻 보기에 색상이나 문양은 파충류와 같은 이미지를 연상시켜 강한 혐오감을 느끼게 하지만 강한 공포심이나 혐오감보다는 재미있다는 느낌이 드는 작품이다. 이것은 문양자체가



<그림 5> Xavier 「H<sub>2</sub>SO<sub>4</sub>」



<그림 6> Patrick Leis 「Terminator」



<그림 7> Sophie Lecomte 「Mise en valeur des yeux」



<그림 8> Sophie Lecomte 「Création de volumes」



<그림 9> Claude Giordano  
「Le dragon」



<그림 10> Patrick Leis  
「MONSTER」



<그림 11> Claude Giordano  
「Le diable」



<그림 12> Claude Giordano  
「La Tête de mort」

섬세하기보다 큼직하고 전반적으로 둥근 형태의 무늬를 많이 사용 하여 날카롭기보다는 몽푹하고 단조로운 표현을 썼기 때문이다.

**2. 그로테스크 특성이 반영된 예술 분장의 작품 제작**

**1) 부조화적 이미지(작품 일러스트/작품 제작)**

모델의 이미지를 극단적인 대조로 연출하고자 반쪽은 아름답고 부드러운 모습으로 반쪽은 피부를 벗겨낸 표현을 하였다. 벗겨진 피부의 표현부위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색상의 차이를 보색 대비가 되도록 선택해 부조화적 모습으로 표현하였다.



**2) 비인간적 이미지**

기본적인 피부색상이나 무늬가 파충류의 피부결처럼 보이도록 디자인 했으며 이마에 눈과 입의 과장된 모습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비인간적인 모습으로 표현하였다.



**3) 기계적 이미지**

무표정한 모델의 얼굴에 차가운 색상과 획일화된 선의 처리로 마치 조각나 있는 금속을 납땜해 퍼즐 맞추듯 끼워 놓은 듯한 형상을 의도적으로 표현하였다.



**4) 왜곡과 과장의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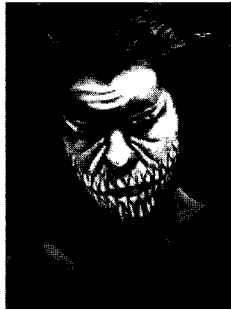
전반적인 색채는 상당히 음울하고 우울해 보이지만 반해 이마에 그려 넣은 얼굴형상은 순수해 보이면서도 게슴츠레한 눈동자를 가지고 있어 시선이 집중되도록 디자인 하였다. 하나의 얼굴에 상반된 느낌의

두 가지 인상의 표현, 즉 이중 얼굴 형상의 표현은 정상적이지 않은 왜곡된 이미지를 전달한다.



5) 악마적 이미지

마치 짐승과도 같은 형상을 표현하기 위해 섬세한 표현보다는 강한 터치를 주로 활용하였으며 인위적으로 그려 넣은 눈과 입의 과장된 표현을 통해 두려움의 표현을 극단적으로 연출하고자 하였다.



6) 유희적 이미지

경극의 여러 캐릭터 중 하나로 어릿광대에 속하는 역할은 얼굴의 중심에 두부모양의 문양을 그려 넣어 캐릭터에 충실한 분장을 한다. 모델의 코의 형태를 평면적으로 표현하고 볼을 밝게 강조해 얼굴을 더 넓어보이도록 만들어 유희적인 느낌을 만들었으며 눈썹과 입술의 선



을 반대로 그려줌으로써 해학적인 느낌을 주었다.

VI. 결 론

‘그로테스크’는 이전의 전통과는 결별하고 일반적인 미의 기준을 벗어난 반 미학적 이미지를 통해 새로운 가치창조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세기말과 새로운 밀레니엄으로 이어지는 혼란한 현실세계에 대한 기대 내지는 불안감은 그간 묻혀있었던 역설적인 문화 예술분야를 재해석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일반적이고 평범하지 않은 이미지추구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그로테스크의 의미를 기준으로 하는 작품창조이다.

이것은 발달된 현대문명을 살아가는 이들의 소외된 상황을 그로테스크의 충격적이며 혐오스러운 표현형태와 그 이면에 내재된 일종의 해방감과 긴장을 통해 삶의 본질을 역설적으로 이해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예술의 한 분야인 분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상적이고 일반화 되어있는 미의 획일화된 기준에서 벗어나 창의력을 중시하는 다양성, 주관성을 뚜렷이 표현하는 작품들로 선보여 진다. 추를 미의 영역으로 끌어들이 실험성과 극단성, 전위성을 이용한 충격효과를 표현함으로써 그로테스크적인 예술 분장이라는 새로운 영역 개발 표현의 확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예술 분장의 영역이 폭넓게 발전했고 예술 분장의 표현 영역이 무한하며 소재나 주제의 선택이 보편화된 미의 기준에 준해서만 움직임의 필요는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예술 분장의 발전을 재조명 해봄으로써 분장이 예술을 표현하는데 있어 단순한 도구로 치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학문으로 자리매김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다양한 방향으로 예술 분장에 관한 발전적인 연구가 지속되길 바란다.

참고문헌

- 1) 필립 톰슨(1986). 그로테스크. 김영무 역, 서울대학교 출판부, p.17.
- 2) 최정화(1997). 현대 패션에 나타난 그로테스크,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7-8.
- 3) 최정화(1997). ‘위의 책’, p.35.
- 4) 월간미술(1989). 세계미술용어사전. 중앙일보사, p.377.
- 5) 김남희(2002). 피카소의 색채를 응용한 아트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

- 사학위논문, pp.9-10.
- 6) 한명숙(1999), 메이크업 디자이너를 위한 마귀아귀 예술, 청구문화사, p.234.
- 7) Terrain Vague, ed.(1986). Makara, Paris:dessain et totra, p.36.
- 8) *ibid.*, p.10.
- 9) *ibid.*, p.42.
- 10) *ibid.*, p.87.
- 11) *ibid.*, p.18.
- 12) Patrick Leis(1997). BODYPAINT, Denmark: Forlaget Tellus, p.85.
- 13) 이진모(1990). 현대 일러스트레이션에 나타난 그로테스크한 표현에 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8.
- 14) Sophie Lecomte(1986). Maquillage visage, Paris: FLEURUS IDEES, p.41.
- 15) *ibid.*, p.39.
- 16) Claude Giordano(1998). Peinture-maquillage. Deuxieme trimestre, p.133.
- 17) 장미숙, 양숙희(2000), 1990년대 후반 그로테스크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메이크업 광고와 컬렉션을 중심으로, 복식, 8(3), p.446.
- 18) Patrick Leis, *op.cit.*, p.31.
- 19) 이진모(1990). '앞의 책', p.36.
- 20) Claude Giordano, *op.cit.*, p.139.
- 21) *ibid.*, p.141.